

광양시, 광양만권중기연수원 유치 총력

영호남 9개 지자체 협력...공동건의문 채택 전달 정현복 시장, 중진공 이사장 면담 적극 지원 요청

광양시가 광양만권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해 영호남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최근 중진공 전주 본사를 방문해 이상직 이사장을 면담하고,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숙원사업인 연수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광양만권 국가 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는 9만7097명의 근로자와 4443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나 연수시설이 없어 기업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역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중진공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수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광양만권중소기업연수원 유치가 남해안 상생발전 촉진과 영호남 기업체 교류의 장으로 활용이 기대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공장배출터(러닝팩토리) 교육기관이 필요한 만큼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양시는 광양만권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해 전남도지사와 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중소기업연수원장 등을 만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여수와 순천, 진주, 사천 등 9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는 연수원 유치에 대한 광양만권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지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여수·순천·광양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광양만권중소기업연수원 유치 의사를 정부에 알렸다.



정현복(가운데) 광양시장이 최근 광양만권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등을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광영동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연수원을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유치전략 마련을 위한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진공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은 중소기업연수원(경기 안산), 호남연수원(광주 북구), 부산경남연수원(경남 창원), 대구경북연수원(경북 경산), 글로벌리더연수원(강원 태백) 등 전국 권역별로 5개소가 있다. 중소기업연수원은 최고경영자과정, 스마트융합, 기술·품질, 이리닝 연수,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프로그램, 기업맞춤 연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29일 '포스코 창립 51주년'을 맞아 광양시와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경제활성화운동본부는 '포스코 기(氣)살리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창립 51주년 맞은 포스코 기 살립시다"

광양시, 캠페인 전개

광양시는 지난 29일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경제활성화운동본부 주관으로 '포스코 창립 51주년'을 맞아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문 앞에서 500명의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포스코 기(氣)살리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포스코 창립 51주년을 맞아 축하해주시는 정현복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미래 100년의 기업, 16만 광양시민과 함께 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는 ▲57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400억원 규모의 LNG TANK 증설 ▲900억원 규모의 광양5호 크루즈 구조물 합리화 사업 ▲100억원 규모 도로 개선/수선변전소 합리화 사업 ▲가칭 금호2교-태인보도교 가설을 위해 515억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 혁신활동으로 올해 2월 동반성장 혁신하브 워크숍을 개최하고

15개사(중소기업 11, 교육기관 1, 행정기관 2, 의료기관 1)가 참여해 참여기업과의 업무 공유와 협업으로 민·관·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시우 제철소장은 "포스코 창립 51주년을 맞아 축하해주시는 정현복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며 "미래 100년의 기업, 16만 광양시민과 함께 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역발전에도 동참하고 있는 포스코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며 "기업시민 포스코의 생일을 축하하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기업사랑 운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축구단 지원과 백운아트홀 등 문화예술 분야, 봉사활동, 장학금 전달 등 인재육성, 재능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해 오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동곡계곡, 치유·휴양의 가족친화 공간으로

하늘정원·보도교 등 27억 투입 백운산 4대 계곡 명소화 박차

광양시가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2단계 사업인 동곡계곡의 산수·힐링 관광 명소화사업으로 과거 옥룡의 명성을 되살리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옥룡면 추산리에 소재한 하늘정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늘정원, 마운딩(언덕) 잔디정원, 포토존, 보도교 2개소 등의 관광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한다.

하천섬에 식재할 수목은 옥룡사 도선국사의 역사와 하천변이라는 환경을 감안해 동백나무와 시 대표수종인 매화나무와 이팝나무, 그리고 병해에 강하고 관리가 용이한 사계절 화초류 등이다.

시는 백운산 4대 계곡 중 봉강 성불계곡 정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5월까지 산수 관광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동곡계곡을 치유와 휴양의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산교 상·하류에 각각 조성하는 하천섬은 완공 시점에 맞춰 옥룡과 광양의 역사를 살린 명칭을 공모하고 관련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번 동곡계곡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진상 어치계곡과 다암 금천계곡에도 편의 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2020년까지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을 완료해 나간다.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에 새로운 콘텐츠를 확충하는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은 '특별히 떠나는 것'에서 '일상에서 즐기는 것'이라는 여행에 대한 인식 전환과 '리빙포스트'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관광'에도 부합해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산 4대 계곡은 과거 수려한 삼림과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대표 관광지였는데 관광패턴의 변화로 찾는 사람이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들이 연중 방문하는 '365일 힐링과 체험형 관광' 거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이 완료되면 구룡산권역과 광양읍권역 그리고 섬진강권역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돼 시 전체가 관광 명소로 거듭나면서 매력적인 남해안 신(新)관광도시로 한층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경찰, 청소년 비행 대책협의회 개최



광양경찰서는 지난 26일 경찰서 매화마루에서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양경찰서 제공>

광양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매화마루에서 1분기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는 지역 내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관기관별 대책 및 정보 공유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위기 청소년 선도·지원을 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교육지원청, 광양시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육성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참여했다.

참여위원들은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은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 기관

별 추진업무 상호 공유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결과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인 김정수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포스코로서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상우 광양경찰서장은 "학교폭력은 지극히 무지한 선조 활동 등을 통해 예방해 나가겠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비행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은퇴자 지원 통해 광양 발전 모색한다

시, 지원시책 발굴 보고회 재취업·창업 지원 등 추진

광양시가 은퇴자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 모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퇴자 지원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등 4개 분야 신규 시책 61개에 대한 보고와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고 상수도 변류시설 현지 조사요원 운영 등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들이 제시됐다.

또 시는 최근 개소한 '신중년 전문인력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은퇴자 재교육과 지역 기업 연계 사업이 은퇴자 요구사항과 맞아 떨어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립미술관 도슨트 양성고 농산물 명예 감시원, 책 읽어 주는 문화봉사단 등 은퇴자 경력을 활용한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서 발굴된 시책을 대상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 시행 시기별로 구분해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은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며 "체감도 높은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은퇴자의 인생 2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19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국제공인대회

2019. 4. 14 (일) 08:00

군산월명종합경기장

Full / Half / 10Km / 5Km
풀 5인조 단체전/하프 5인조 단체전

주최: • 주관:

후원:

www.smgmarathon.com 063-465-7731 02-418-7881

교통통제 4월 14일(일) 06:30~13:00

4월 14일(일)에 개최됨에 따라 구간별로 교통이 통제 되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